

## 종합토론

이재룡 : 불문학과에 재직하고 있는 이재룡입니다. 글을 쓰면서 문자로 남길 때, 표현에 어려움이 있다거나 가끔 글을 쓰다보면 있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혹시 이 자리에서 발표하신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청중께서도 가장 편한 마음으로 다형 김현승의 시 세계에 대해서 깊은 이해를 추구한다는 의미에서 토론에 임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발표하신 선생님들께서도 토론하시기에 편하실 것 같습니다.

먼저 청중석에서 오늘 발표하신 것을 들으시고 미처 질문 못한 부분, 궁금하신 대목, 이 자리는 어떤 첨예한 논점을 가지고 대립적으로 논쟁하는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추가적인 설명을 요청한다거나 거기에 자신의 의견을 덧붙여도 되겠죠. 이런 정도의 토론 자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발표하신 선생님의 성함을 거명하시고 질문해 주시면 되는데, 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질문 드리겠는데요. 맨 마지막에 발표하신 이경호 선생님부터 오늘 발표하신 분들이 서로 조금씩 주제를 달리해서 발표하셨기 때문에 상대방의 발표문에 대해 상호토론하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먼저 이경호 선생님께 대화를 열기 위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앞에 발표하신 분과 달리 이경호 선생님께서 제기한 문제가 언어에 대한 문제, 언어의 회의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 것이 굉장히 흥미롭다고 생각합니다. 절대고독이라든지, '절대'자가 붙은 다음에 반드시 제기되는 문제가 언어의 문제인 것 같아요. 아까 광광수 선생님께서도 말라르메의 예를 들기도 하셨지만, '절대'문제 나오고 나서 다음에 바로 뒤따르는 게

시인이 절대적 문제에 천착하게 되면 그 다음에 표현하는 언어의 문제가 고민으로 따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유성호 선생님도 그렇고, 김재혁 선생님도 그렇고, 각자 주제와는 다르지만, 시인에게 공통적으로 제기되는 문제, 언어에 대한 문제, 신에 대한 회의가 그 다음 다시 언어에 대한 문제로 동시에 일어나고 있는데, 미처 생각을 안 하셨을 수도 있겠지만, 대화를 여는 의미에서 한번 나눠보았으면 합니다. 아까 언어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좀더 편한 대화식으로 달리 표현할 수 없을까요? 이경호 선생님부터, 김현승의 언어 문제,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이경호 : 사실은 제가 다 인용을 못했습니다만, 완성된 글에는 그 부분이 들어갈 텐데, 사실 저로서도 그 부분이 김현승 시 세계에 대한 평가라고 하는 미학적 평가, 언어의 변화, 시적표현의 변화, 언어적 측면이라든가, 아까 말씀드렸던 초자아가 됐든, 사유에 따른 필연성이든 어쨌든, 제가 배운 미학적 체계에서는 저는 그러한 변화가 그다지 좋아 보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절실함은 알 수 있지만, 절실함과 그 절실함이 표현되는 것과는 다른 측면이 미학적인 측면인데, 미적거리라고 하는 것이 과연 김현승의 절대고독의 측면에서 무엇이었을까? 그것은 앞으로 제가 고민해야 할 문제거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재룡 : 릴케와 관련해서 발표해 주셨는데요. 제가 강의 때문에 발표 초반을 듣지 못했지만, 아시다시피 김재혁 선생님은 릴케를 전공하시고, 최근에도 허만하 시인과 비교해 주셨고, 우리나라 시인들과 릴케와 비교해 놓은 논문을 많이 발표하셨습니다. 릴케의 언어관이라고 할까요. 시인이라고 하면 누구나 한번쯤은 표현의 문제, 언어라는 게 과연 절대자의 모습을 표현하는데, 적절한 수단인가, 이것과 비교해서 김현승의 경우와 비교해서 언어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으면 합니다.

김재혁 : 언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감정이나 이런 걸 표현하기에 부족한 도구라고 할 수 있죠. 우리가 알지 못하는 나라의 언어는 알아들을 수 없습니다. 릴케 같은 경우는 언어에 대해서 회의를 했지만, 초창기에는 김현승과 비슷한 관념위주로 썼다가, 시인이자면 가끔 그런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음악이든 그림이든 조각이든 한다면, 조각가라면 공통의 언어로 잘됐다, 표현한 것을 알 수 있고, 그림도 마찬가지로. 그런데 만약에 내가 그림 그리는 재주도 없고, 조각하는 재주도 없다. 그러면 시인이자면, 나도 한번 동물원에서 움직이는 호랑이의 모습이라든가, 아니면 그림을 그려보고 싶다는. 언어로서, 시어로서 어떻게 하면 그것을 절묘하게 표현해 볼까, 이런 생각을 해서 나온 게 릴케의 경우는 사물시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사물시의 표본이라고 할까, 회전목마 같은 것을 보면 동영상이라고 보면 돼요. 동영상을 언어로 표현했다. 언어라는 것은 시간적인 것인데, 시간적인 것을 동시적으로 표현할 수 있느냐, 그것을 추구한 게 릴케입니다. 김현승의 시를 보면서는 언어에 대한 고민보다는 ‘자기애’가 상당히 강하지 않았나, 자기 얘기를 하고, 그것을 주제의식 위주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학술적인 냄새가 난다는 게, 논문을 쓰기 위해서 테마로 밀고 나가듯이 시를 그렇게 썼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아까 유성호 선생님도 말씀 하셨듯이 그러면은 나쁘게 보면 나쁘게 볼 수 있어요. 그러나 독일의 괴테나 셸러 같은 경우 사상적이고, 철학적인 시를 쓰거든요. 그렇다면 그것을 폄하해서 우리나라에 없다고, 그런 독특한 시적 세계를 폄하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각도에서 고찰하느냐에 따라서 김현승 시인의 후기시 같은 경우는 평가가 달라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나름대로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유성호 : 사실 김현승 시인의 언어관이라는 것은, 또 다른 전거를 갖춰가지고 진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읽은 경험에 의하면 김현승 시어 자체,

시어관에 나타난, 시어로만 보면, 초기시는 사물이나 이런 것들을 감각적인 이미지로 조형하는데 많이 공을 들였다면, 아까 〈신설〉이라는 작품에도 나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어의 불가피성도 알지만, 불충분성도 아는, 실재를 언어보다 우위에 두는 언어관이 보이는 것 같구요. 산문적인 진술은 후기에 집중되면서 언어에 대한 불신, 언어가 가지는 교훈성, 마지막 절대고독에서 다 입을 다물고 나의 시조차 함구해 버리는, 이 함구할 때 생기는 그 사운드 오브 사일런스 혹은 거기까지 갔으니까 언어는 시 끝으로 날아가 버리는, 언어에 대한, 불가피성도 알지만, 불충분성도 아는... 그런 서정 같은 게 아주 짙게 보이는 것 같아요. 좀더 산문적 진술을 보완해 가지고 언어관을 해명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재룡 : 아까 광광수 선생님께서 말라르메를 잠깐 언급하셨는데, 말라르메도 언어의 순수성, 인간이 갖고 있는 의미와 물질성을....., 관련해서 많이 언급된 걸 들었거든요. 연관시켜서 까마귀하고 언어의 이미지가 말라르메의 경우하고 김현승 시인하고 유사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광광수 : 제가 말씀드린 것은 많이 달라요. 상징주의 이론이... 불란서 시어에... 사물화라는 것, 예컨대 여기서 이 선생님이 동의한 언어의 현상학적 이해라든가, 언어를 문제 삼은, 아니면 사회자가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그게 아닙니다. 언어학적, 구조주의 이후에 언어학적 구조주의 이후에... 보들레르 이후로 말라르메를 거쳐서 발레리에 이르기까지 계속돼요. 그래서 우선 사물은 첫째 기표가 이야기를 만들어 냅니다. 그 이야기가 이차적으로 구조를 만들어 내고, 그런데 신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신은 그 기표 자체의 어휘에 속한다는 것, 극단적으로 말하면, 기표 자체가 바로 시가 탄생하는 것을 가리키는, 그런 것을 노리기

때문에 시적 기법이다. 문학사가들이 하는 얘기는 그 앞서 예술지상주의의 이미지를 강조하는 반면에 상징주의는... 문학사상... 틀렸어요. 뭐가 틀렸냐면 그 언어에 물리적 측면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바로 시어가 환기하는 심상의 아름다움을 말하는 겁니다. 제가 보기에, 사실 이 선생님 이하, 사회자 이하, 모든 분들이 하시는 얘기가 그런 쪽으로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나 제가 하는 얘기는 ‘견고한 고독’이라고, ‘견고한 고독’ 소리가 공감각에 의해서 그 소리가 단단해진다는 거죠. 제가 말씀드리는 것 하고는 상관이 없고, 이재룡 선생님 말씀을 들으니까 아, 그런 거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재룡 : 언어의 문제를 얘기할 때는, 문체 문제, 건조하고 한자라든가, 관념적 언어가 많이 사용됐다는 그 정도의 측면으로 요약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더 나아가서 언어에 대한 깊은 회의가 있다. 그러면 언어에 대한 문제의식이 과연 시에서도 표현되거나 시도된 적이 있는지 논의될 가치가 있지 않을까 생각되는 데요.

이경호 : 가령 장식적인 문체, 수사적인 장치라는 게 장식적인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 점에 있어서는 김현승 시인에게서 어떤 미덕을 사유와 더불어서 삶의 장식들을 떨쳐내는 그런 것에 간단한 이미지 효과는 어느 정도 담아낸 것 같은데, 다만 그것이 반쪽 같아 보인다는 거죠. 한 쪽으로 보이지 않고, 저도 이것을 지금 제가 충분한 자료를 가지고 준비하지 못해서, 지금은 뭐 많이 못하겠습니다.

김재혁 : 사실 저는 여기 오면서 한 가지 준비해온 게 있는데, 저는 김현승 전문가가 아닙니다. 제가 보기에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김현승 시인은 일단 어떤 테마가 떠오르면 그것을 시적으로 만들 수 있다는 생각

을 하고 계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언어에 대한 회의는, 제가 읽은 《김현승시전집》에서는 읽지 못했던 것 같구요. 제가 보기에는 일단 마음이 있으면 마음의 공간에 언어가 없으면 된다, 라고 생각한 것이 아닌가. 제가 쓴 글 중에 하나가 김현승과 릴케를 비교하면서 쓴 글에 ‘마음에서 언어로’라는 글이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언어에 대한 회의 보다는 마음에 대한 회의가 더 많았던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재룡 : 릴케 전공자께서 말씀 하셨는데요. 저도 우연치 않게 김현승 시인을 논하는 자리에서 외국문학 전공자가, 이경호 선생님도 영문학이고, 유성호 선생님은 국문학이고, 김재혁 선생님은 독문학이고, 저도 불문학이고, 광광수 선생님도 불문학이고... 그런데 김현승 시인께서 서구 편향적이라고 할까요, 기독교 영향 때문에 종종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듣는데, 국내의 평론가나 시인보다는 서구적인 감각과 더 잘 통하지 않는가 막연한 짐작인지, 정말 근거 있는 이야기인지 자신 있게 말하지 못하겠지만, 그런 면도 없지 않은가 생각이 듭니다. 제가 아는 릴케는 프랑스에서도 가끔 실존주의를 언급할 때, 철학자로 언급하지 않고, 문인들 또는 문학작품에서 예를 들어 실존주의를 말할 때, 릴케를 잘 언급하는 것 같습니다. 고향상실이라든가, 이방인 의식 같은 걸 릴케를 예로 자주 드는데, 이건 제가 발표해야 하는 건지, 비교문학을 전공한 김재혁 선생님께서 말씀하셔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혹시요. 그 시대를 살았던 사람과 릴케와 더불어 독일이나 프랑스 실존주의와도 연관관계가 있지 않을까, 사상적으로요. 실존주의에 비춰봐야겠지만, 혹시 그런 흔적 같은 걸 발견하신 적이 있으신지요?

김재혁 : 릴케, 글썬요. 그 부분은 잘 생각해 보지 않아서. 실존주의에서 독일의 실존주의 개념을 더 위로 올린다면, 죽음을 일단 염두에 둔다

면, 그 부분부터 실존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는데, 만약에 그런 개념으로 더 확장을 시킨다면 김현승 시인에게서도 그런 고뇌의 흔적은 발견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김현승 시를 읽으면서 한결같이 느꼈던 것은 기독교라는 카테고리가 너무 크게 작용하는 것이 아닌가. 만약에 그런 카테고리가 없다면, 실존주의라는, 릴케 같은 경우 완전히 진공상태로 빠져 들어가는 고독 속에서 자신의 실존이라든가 아니면 일반 존재의 전반적인 상황에 대해서 성찰하고 거기에 대한 해답을 추구했는데, 김현승 시인의 경우 고향으로 쓰러지고 나서 다시 자신이 고독을 추구한 것을 후회한 것을 읽어보았는데, 그렇다면 진정한 실존에 대한 고민과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은 기독교라는 카테고리 안에서 움직였기 때문에 그렇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유성호 : 직접적인 영향관계는 잘 모르겠지만, 그동안 김현승 시인의 시 세계를 비유하거나 아니면 영향관계를 얘기할 때, 키에르케고르 얘기를 많이 했죠. 그리고 마르셀이나 야스퍼스 같은 서구의 유신론적 실존주의자들하고 김현승 시인이 굉장히 차별성이 높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철학자들이 정통적인 의미의 크리스천들은 아니거든요. 신이라고 하는 어떤 실체, 아니면……, 그것으로부터 철학적 체계를 구축한 사람들이고, 김현승 시인은 태생부터 돌아가실 때까지 기독교라는 현실종교, 제도종교의 자장 안에서 함께 했기 때문에 좀 차이는 있지만, 사유 구조에서는 그 쪽으로 기울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크리스천인 자신의 정체성을 표방한 사람들보다는 오히려 유신론적 실존주의자들하고 더 가까웠을 것 같습니다. 제가 첨언하자면 언어관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표명한 시가 있느냐, 그런데 사실 발견하긴 힘들지만, 명백하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표적인 게 아까 말씀드린 <가을의 시>나 <절대고독>에서 이 분이 시와 신, 시에 대한 관념하고, 신에 대한 관념이 유추적으로 병치되면서 그것

들이 부정되고 그러는 게, 시에서 나타난다고 봅니다. 조금 더 정치해야 되지만 언어를 같이 청산합니다. 절대고독으로 밀어 부치면서 신으로부터만 떠난 게 아니라 언어로부터도 떠나보내는 의식을 치르거든요. 그래서 언어에 대한 회의와 신에 대한 회의가 동시에 병존되는 느낌이 있어요. 지금은 제가 경험적으로만 말씀드린 거고, 작품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은 명백한 데, 더 전거를 갖춰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언어에 대해서 예민하게 의식적으로 가졌던 것만은 분명합니다.

이재룡 : 제가 김현승 시인에 대해서 아는 바 없지만, 신에 대해서 회의한다거나 고독을 느낀다거나 외로움을 느낀다거나 하는 것은 꼭 시인이 아니더라도 누구나 느낄 수 있는 괴로움이고 외로움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른 누구도 아닌 시인에게 시인만이 가진 직업병이라고 할까요. 언어와 관련된 고독이라든가 언어에 대한 회의가 다른 것과 시인만의 외로움이…… 그것이 발견 안 될 수가 없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절실한 고독, 신까지도 저버릴 만한 외로움의 단계가 되었을 때, 시인이라면 반드시 언어의 문제가 병행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맨 마지막 발표하신 이경호 선생님께서 언어문제를 언급하셨기 때문에 제가 시작을 그것으로 열었습니다. 저도 외국문학을 하다보니까 가끔 문학 분야에서 비교 관점으로 설명해달라는 말을 듣습니다. 실존주의와 관련해서, 한국 문학과 실존주의의 관계에 대해서 비교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억지로 해 봤는데 그게 쉽지가 않고 작품 속에서 작가가 직접 고백한 것 외에 작품 속에서 따지는 게 훨씬 어렵고, 분명치가 않거든요. 외국문학을 통해서 재수입된 것도 있고, 시기적으로 김현승 선생님이 감수성이 형성되거나 작품으로 활동하게 될 때, 우리나라에 실존주의가 어느 정도 영향이 있었고, 특히 릴케의 영향을 받았다면, 비슷한 감수성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여쭙봤습니다. 곽광수 선생님께서도 외국문학을 전공



하셨습니다, 유독 김현승 시인에 애착을 갖고 이번에도 어려운 발걸음을 해주셨는데, 프랑스나 아니면 외국작가와 우리나라 작가들과 병렬해서 연구하는 데 따르는 위험한 점이나 유의해야 될 점이 있지 않을까요?

곽광수 : 실존주의 얘기를 잠시 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게 독창적인 게 아니니까, 저쪽에 기왕에 있었던 것이니까, 김현승 시인이 한 게 없다고 하는 데, 독창성에 대해서 말씀해 가지고, 그 앞서 제가 쓴 글에는 마지막 부분이 고독의 단계를 여러 가지로 나눠서 본 게 있습니다. 산문집에서 견고한 고독으로 나아가는 전 단계가 신 앞에서의 고독이에요. 오늘 까마귀……, 그러니까 실존주의의 핵심은 무엇이냐 하면, 인간의 의식의 초월성이라든가, 그것은 너무 어려운 얘기이고, 현상학적으로 인간 존재라든가, 공허라든가, 재미가 없다는……. 요컨대 윤리적인 기독교 실존주의나 윤리적인 실체가 없는 거예요. 윤리적 실존주의는 아예 의미가 없다고 했기 때문에 내가 의미를 만들어 가야 하는 거죠. 근데 그와 비슷한 양상을 유신론적 실존주의에서도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신께서 의미를 주되, 그 의미는 저 멀리 있습니다. 영혼은 이승에서는 의미가 없는 거죠. 의미가 없다가보다는 신께서는 아무런 이해가 안 가죠. 왜냐면 그것은 수월한 실존…… 이미지, 현대문학을 한마디로 실존주의로 설명한 10권짜리 책이 있어요. 그 사람이 ‘갓 사일런스’, ‘신의 신’ 예컨대 그런 것은 개인적으로 그리스도 교화 실존주의예요. 예를 들어 그리스도가 “엘리엘리 라마 사박다니” 라고 했을 때, 신께서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까. 신 없는 고독 속에서 그리스도 혼자 다 하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기독교 핵심이 실존주의적이라고 말할 수 있죠. 신께서 바라는 것은 자기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신께서 주신 것은 자유입니다. 자기와 같은 자유. 선악과의 신화도 다른 게 아니예요. 너희들이 자유롭게 나를 선택하라 이겁니다. 왜 신께서 선악과를 지어놨겠어요. 신께서 선악과를

짓지 않았다면, 에텐동산에서 마냥 잘 살았을 것 아니에요. 그러나 신께서는 바라지 않았어요. 너희들이 악도 있고, 선도 있다는 걸 알면서도 나를 선택하라 이겁니다. 그게 기독교의 본질입니다. 그러니까 신께서는 자유를 주기 위해서 악을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신께서 바라는 것은 악이 있는 세상에서 너 혼자 자유를 가지고 살아가면서 나를 찾아오라 이것이 신이 바라는 겁니다. 기독교적 실존주의에……. 유신론적 실존주의도 똑 같습니다. 사건의 핵심의 주인공, 벨라노스의 주인공 등 전부 다 그래요. 신께서 도와주지 않으니까 자기 혼자 나아가는 겁니다. 그 양상이 무신론적 실존주의의 윤리적인 것과 똑 같습니다. 그런 비극적인 상황이 결국 견고한 고독이에요. ‘견고한 고독’, 신을 버린 고독에 앞서 그런 서양의 유신론적 실존주의자들의 고독을 겪는 거예요. 제 글에서는 상세하게 설명을 해 놓았는데, 관심이 있는 분들은 읽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앞에 까지는 서양에 다 있었던 것이니까 독창적인 게 아니죠. 보들레르의 시편하고 비교해서 해 봤으니까 읽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재혁 : 아까 언어에 대해서……, 갑자기 생각이 나서 제가 책을 가져왔습니다. 시중에 김현승 시인의 《옹호자의 노래》가 있는데, 이것을 이렇게 읽을 수 있다면 릴케와 비교해서 언어에 대한 얘기를 한마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옹호자의 노래》에 이러한 구절이 있습니다. “말할 수 있는 모든 언어가, 노래할 수 있는 모든 선택된 사조가, 소통할 수 있는 모든 침묵들이 고갈하는 날, 나는 노래하련다. 모든 우리의 무용한 것들이 허물어지는 날, 모든 그윽한 꽃향기들이 해체되는 날, 모든 신앙들이 입증의 칼날 위에 서는 날, 나는 옹호자들을 노래하련다.” 거기에 보면 언어의 해체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쓰고 있는 관습적인 언어가 해체되는 날, 진정한 언어가 탄생할 수 있다는, 이런 식으로 이 시를 읽을 수 있다면, 릴케가 《말테의 수기》에서

얘기한 이른바 다른 해석의 시기라는 게 있습니다. “언젠가 모든 언어들 이 구름처럼 녹아내리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날 새로운 진정한 언어가 싹틀 것이다, 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김현승 시인이 현재 언어에 대해서 어느 정도 무조건 신뢰하지 않고, 나름대로 이것이 실제 언어가 되는지 모르겠지만, 《옹호자의 노래》인데, 아마도 언어에 대해서 나름대로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언어가 아닌 신의 언어들, 릴케가 말한 또 다른 보다 진정한 언어다운 언어, 이를테면 우리가 “열려라 함께!” 하면 말이 행동이 되어 열리듯이 그런 식의 언어 신비주의적인 유대교가 말하는 그런 언어를 꿈꾸지 않았나, 이런 생각에서 말씀 드렸습니다.

이재룡 : 그러면 긴장을 풀고 계신 청중들께 기회를 드릴까요?

질의 : ……

곽광수 : 제가 보기에는 결코 경직된 시인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서구의 회의하는 기독교인들의 모습이 다 나오거든요. 오히려 저는 우리나라 신교의 어떤 광신적인 신교로 본다고보다는 이단으로 보이지 않을까. 그리고 제 관점이 그래요. 절대고독이라든가, 완전히 내 영혼이 끝에 가서 자기 고독을 얘기할 때, 목적위의 목적이라든가 고독이라는 것은 어디에 대한 고독인가, 누구누구하고의 상대적 고독, 저 혼자만 있는 고독, 완전히 ‘신’하고 떨어진 그런 마지막 단계에서는 떨어졌다 생각하고, 오히려 광신적인 우리나라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훨씬 더 자유롭고…….

유성호 : 이렇게 몇 개의 좌표를 그려보면 김현승 시인이 더 뚜렷해지는 것 같습니다. 정치용시인이 자기시의 중기시에 대해서 그 시의 대중을

절대자를 지적으로 형성해 놓고 그 분에게 다가갈 수 없는 경외감, 범접할 수 없는 절대타자에 대한 경외감, 이런 걸로 한국시의 한 정상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운동주로 가면, 운동주는 이것을 전적으로 윤리적 내면으로 치환해 버립니다. 절대타자에 대한 경외보다는 그것을 이룰 수 없는 자신으로 피드백을 하는 윤리적으로 치환하는데, 김현승 시인은 절대자에 대한 절대경외도 아니고, 윤리의식으로서의 내면적 치환도 아닌, 지적으로 사고하는 어떤 패러다임의 자유로움을 보여주신 것 같아요. 저는 원래 김현승 시인은 기독교적인 신앙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뭔가 신앙적 동일성이나 부분적인 종교로 표백하는 이런 글을 기대했다가 전혀 탄력 있는 사고로 바꾸었기 때문에, 제가 아까 발표했던 것처럼, 김현승 시인은 제도종교에서 말하는 종교적인 작품도 아니고, 종교에 반하는 작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탄력성을 주었기 때문에 굉장히 다채로운 시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시가 재밌지 않잖아요. 재미있다는 말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감성적인 동일성을 쥐도 재밌고, 약간의 사회적 의식을 고양시켜줘도 재밌는데, 김현승 시인은 시로써 발언하는 것은 한국 서정시의 본류들, 역사 의식이라든가 서정적 동일성, 다른 것들을 천착하고 있기 때문에 뭔가 낯설이라고 생각이 되요. 근데 그게 한국기독교 문학이라는 정체성의 풍요로운 외연을 갖고 계신 거고, 경직되거나 아니면 교조적이지 않고, 상당히 자유로운 사고를 보여주신 시인이라고 봅니다. 이것조차 작품의 예를 들어 설명해야 하기 때문에 막연한 인상을 주는 것 같습니다.

이재룡 : 시간이 많이 됐는데, 한 분 정도 더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김현승 시인에 대한 지금까지의 모든 논의들을 짚어보고, 현재성 문제도 따졌는데, 제 개인적인 느낌입니다만, 김현승 시인이 생전에 계실 때, 발표하신 것이나 시단의 활동에 비해서 작고하신 후에 그 분

에 대한 논의가 현저하게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 아쉽기도 하고, 그런 논의를 활발하게 하는 것이 시의 의미를 더 풍요롭게 하는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현재 김현승 시인의 시를 어떻게 읽어야 될까, 또 앞으로 독자들이나 시인들이 어떻게 읽어야 할까, 우리가 예견할 수는 없지만, 현장에서 가장 많이 시를 읽고 심지어 시인 지망생들의 시를 읽으면서 시단의 풍향이라고 할까요, 동향을 잘 감지하고 계시는 이경호 선생님께서 김현승 시인이 과연 우리 시대의 감수성과 괴리감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어떤 게 있을까요? 김현승 시인이 지금 현재 시인들이나 시단과는 꽤 큰 시간적 차이를 감안하더라도 거리가 있지 않을까 생각되거든요.

이경호 : 제가 답변을 하기 전에 유성호 선생님께 한 가지 질문을 해드리고 싶어요. 창비에서 김현승 시인에 대한 시집을 내셨죠? 그 시집 뒤에 보면, 어느 분이 발문을 쓰신 걸로 기억이 되는데, 안타까움을 토로하는 대목이 있습니다. 저는 김현승 시인에 대해 발표하는 것을 보면 나에게로 돌아가는, 내면으로 침잠하는 시인, 그런데 창작과비평사에서 시를 발표하고, 시집을 내셨고, 창비에서 김현승 시인의 감수성에 대해서, 그 당시 1960년대 한국적 현실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정의롭지 못한 사회, 억압된 사회, 이런 것에 대한 말하자면 시인으로서의 입장에 대한 발표된 시편들이 있는데, 그런 작업들이 더 지속되지 못한데 대한 아쉬움을 토로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선생님께서 종교에 귀의하신 것과 연관되는 대목에 대한 아쉬움인지, 단지 돌아가신 것에 대한 아쉬움인지에 대한.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돌아가시기 전에 나온 시집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들어보고 싶네요. 그런 시편들, 현실적인 사회 정의라든가.....

유성호 : 그런 시편들이 《옹호자의 노래》에 집중적으로 실려 있는 데요. 저는 그렇게 읽었습니다. 사실 30년대 문단을 주도했던 예를 들어, 유치환, 조지훈 이런 분들도 다 사회적 분노에 대해서 ‘뜨거운 노래를 땅에 묻는다.’ 박두진 선생께서도 굉장히 ‘깃발을 내린 것이 아니다.’ 이러면서 사회적 참여의 시를 굉장히 응분의 분노들을 미화하는 시를 쓴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김현승 시인은 거기서도 외에입니다. 이런 상황에도 나의 마음 또는 나의 태도, 나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는가, 이런 쪽으로 피드백 회로를 분명히 갖고 계세요. 그러니까 사회적 관심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공적 자아화하는 데까지 이르지만 그것이 현실을 탐색하고 현실에 대한 재현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극한 자아 회기구조를 갖고 있는 것으로 읽었어요. 그러니까 사회적 의식 자체의 빈곤이라고 할 수는 없는 거구요. 그것을 지적으로 처리하는 방식에서 궁극적으로 나의 문제에 좀 더 방점을 두시고, 시를 썼다는 《옹호자의 노래》라는 시집 일부에 실려 있는 시편들이 바로 그러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김인섭 선생님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김인섭 : ……

이경호 : 현장에서 시인들이 시가 자꾸 변모하는 데 대한 말씀을 드리자면 별로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제가 사실 김현승 시인의 시와 상관없이 말씀드리자면, 주목해야 될 점은 자아와 철저한 대상과 아주 이질적인 것과 그야말로 아주 가차 없는 피 튀기는 싸움의 과정 같은 것들이, 상상력도 그렇고 언어적 표현에 있어서도 굉장히 과감해야 되는데, 선생님의 시에서는 종교적 현실이라든가, 윤리적인 집행 때문에 그런 엄격성이 시언어 표현이라든가 의식에 있어서도 그런 특징을 보이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아직까지도 우리 한국시단에서는 김수영의 영향에서 자유롭

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것이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지만, 저는 우리 한국의 시단에서 생동감 있는 전복의 상상력이라 할까요. 전복의 언어들, 이런 것들이 갖는 시 에너지들을 우리 시가 관심을 가져야 하지 않을까, 현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서 좋은 말씀드릴 게 별로 없습니다.

이재룡 : 가장 솔직하고 정확하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김현승 시인을 연구하는 분들이나 김현승 시인의 업적에 대한 일을 저희 학교에서 꾸준히 해야 될 텐데, 많은 참고가 될 것 같은데요. 예정 시간보다 30분 경과한 것 같습니다. 다른 질문이 없으시면 그만 마무리 할까 합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